

火災現場과 防火

取材記者의 體驗記

扈 天 雄

<K B S 記者>

事件을 찾는 記者들에게는 消防車의 붉은 사이렌 소리가 가장 神經을 刺戟하는 興奮劑이다 특히 불이 자주 일어나는 철에는 消防本部에 電話라도 걸어 火災現場에 出動한 事實이 없는 것을 確認하고서야 잠들수 있을 程度로 불은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事件記者들을 괴롭히는 負擔이 된다.

잠자다가 뛰쳐 나가기를 하루밤에 몇 차례씩 되풀이 할때도 있고 밥을 먹다 말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狀況도 자주 겪는 일이다.

그러나 火災現場의 慘狀을 보고 火災의 原因과 規模를 取材하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나 작은 잘못이 엄청난 悲劇을 빚는 다는 事實이다.

올들어 서울市內에서 일어난 불 가운데 記者가 取材에 나섰던 火災現場을 中心으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불의 危險要因들을 點檢해 보기로 한다.

× × ×

1. 朝苑 火災

日時: 1977年 2月 3日 밤 7時 35分

場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8번지

原因: 石油난로의 노크 現象



被害: 死亡 8, 負傷 17, 財産 330만원

火災現場에 到着했을 때 불길은 큰길 쪽에 있는 大林여관에서도 치솟고 있었고 가운데 朝苑 음식점과 그 옆 2層 住宅에서도 煙氣와 불길이 나오고 있어서 불이 어디서 났는지도 알수가 없었다. 우선 消防指揮車의 狀況版에 적힌 內容을 메모하고 목격자들의 말을 덧붙여 겨우 一報를 보낼수 있었다.

鎮火作業이 끝난 뒤에도 人命被害 狀況이 正確히 밝혀지지 않아 取材에 애를 먹어야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8구의 屍體가 確認됐는데 男·女를 가리기도 힘들 정도로 시커멓게 타 있어 身元은 다음날에야 밝혀졌다.

불이나자 2層에서 뛰어 내리다 다친 사람이 17명이나 됐다. 慘事가 빚어진 음식점 朝苑의 2層은 연달아 있는 大林여관과 2층住宅 그리고 음식점 朝苑등 3個 建物の 2층을 하나로 터서 연결한 構造였다.

하나로 연결된 80여명의 2층은 홀과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13個의 密室로 나누어져 있고 방마다 종이와 베니아板으로 된 칸막이가 가로 질러져 있었다. 屏風와 장식물등 불에 잘 타는 物質들이 많아 불길이 삼시간에 2層 全體로 번졌고 비닐로 된 벽지와 마루의 양탄자가 타면서 내

짧은 有毒가스 因한 人命被害가 컸다.

불이 완전히 꺼진후 屍體들이 덩굴고 있는 火災現場은 마치 映畫에서 볼 수 있었던 「폼페이 最後의 날」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타버린 密室보다는 오히려 半쯤 타다 남은 술 자리에서 더욱 生々하게 불길을 느낄수 있었다. 시커멓게 그을린 맥주병들이 눈길을 끌었고 무겁한 생선회와 값비싼 料理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있어 當時의 狀況을 브지 않고도 쉽게 알아 볼 수가 있었다.

30분만에 불길이 잠긴 火災規模에 比해서 人命被害가 컸던 것은 建物 構造의 缺陷때문이었다. 3층의 건물 2層이 하나로 터져 이어졌고 긴 복도 양쪽으로 密室이 들어서 있는데도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2個뿐인 階段이 大林여관 쪽으로 치우쳐 있어 안쪽 밀실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避할 길이 없었다.

세브란스 病院에 入院했던 從業員 金모양은 8호실에서 손님들의 술 接待를 하다가 불났다는 소리에 놀라 손님들과 함께 뛰어나왔으나 1層으로 내려가는 階段쪽에서 불길이 덮쳐와 큰길쪽에 있는 6호실로해서 窓밖으로 뛰어 내렸다고 말했는데 다친 사람들 대부분이 金양처럼 窓밖으로 뛰어내려 생명만을 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5具의 屍體가 함께 發見된 13호실은 길쪽으로 난 窓門에 防犯用 鐵網이 쳐있어 창문으로 避할 길도 막혔던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危險속에서 石油난로와 電氣 콘로까지 使用했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불붙은 난로를 들고 다니기 까지 했다는 事實도 밝혀졌다.

朝苑의 불은 경찰 調查結果 홀에 피워 놓았던 포트식 石油난로에 너무 많은 量의 石油가 들어가 過熱된 「노크」現象으로 난로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불로 불이 發生한지 이틀뒤에 밝혀졌다.

「노크」現象이란 난로 自體가 파열되거나 石油

밸브의 異狀으로 한꺼번에 많은 量의 기름이 난로안으로 들어갔지만 미처 이를 燃燒시키지 못해 기름통에 까지 불길이 닿게되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朝苑의 불은 石油난로 管理 잘못으로 냈지만 建築 構造의 잘못으로 크게 번졌고 많은 사람의 犧牲者를 낸 것이다.

2. 미가도 빌딩 火災

日時：1977년 1월 14일 새벽 3時 22分

場所：서울 중구 다동 91-3

原因：石油난로 管理 잘못

被害：死亡 4. 負傷 11. 財産 3천만원

미가도빌딩 옆에 있는 술집 「크로바클럽」의 종업원 白君(17)은 지난 1월 13일 밤 11시 半이 넘어서 이웃 미가도 생선회「센타」로 故郷 先輩인 從業員 金정석氏(25)를 찾아 갔다. 둘은 생선회를 안주로 소주를 나눠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홀의 의자들을 불러 놓고 잠을 잤다. 새벽 3시가 지나서 잠들었던 白君은 추워서 잠이 깬다. 의자 옆에 있는 난로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白君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석유통의 석유를 붓다 보니 아차하는 순간 石油난로에 불이 붙는게 아닌가! 당황해진 白君은 물을 가지러 간다고 주방쪽으로 뛰려다 그만 5L들이 프라스틱 석유통을 얻저르고 말았다. 석유통이 넘어지자 1層 홀바닥이 삼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급해진 白君과 잠에서 깨어난 金氏는 地下와 위층으로 달려가 各層에서 잠자던 종업원들을 깨워 待避시켰다.

미가도 빌딩은 지난 69년에 新築된 建物로 地下層은 「영」살롱이란 맥주홀이, 1, 2層은 미가도 생선회센타가 그리고 3, 4, 5層은 맥주홀 景都會館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연 건평 500여평의 이 건물은 걸면은 콘크리트

火災現場을 파헤쳐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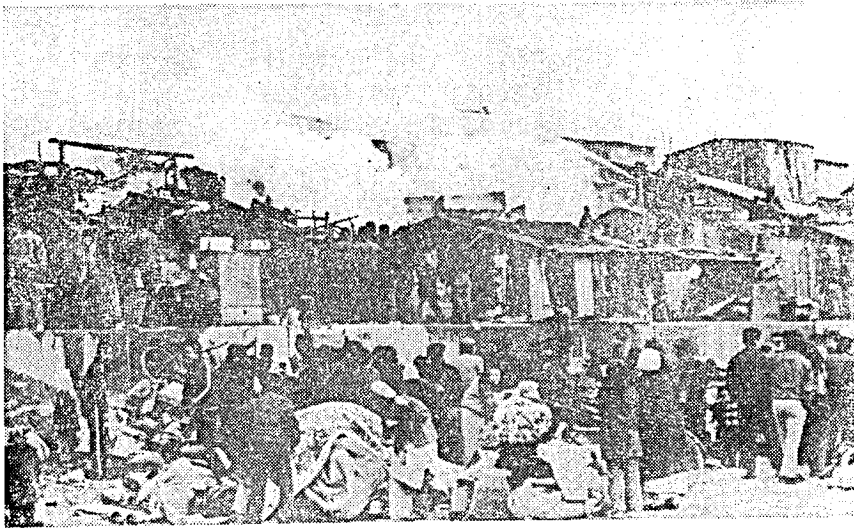
로 돼 있으나 안쪽은 모두 木材로 돼 있었다.

1층에서 번지기 始作한 불은 의자와 식탁등을 태우면서 階段을 타고 2층으로 번졌고 칸막이와 비닐커버 등 可燃性 物質로 꾸며진 맥주홀 3, 4, 5 層까지 퍼지는데 40餘分 程度밖에 걸리지 않았다. 消防車들이 달려와 불을 끄려 했지만 소화 전이 열어 불어 鎮火작업이 활발하지 못한데다가 창문들이 대부분 閉鎖되어 있어 물을 쏟아넣기가 어려웠다. 불길이 번져 오르자 잠자던 중업원들은 5층으로 待避했으나 하나뿐인 非常口

被害: 死亡 14. 負傷 1. 財産 300만원

「로방살롱」의 불은 避難口가 없는 建物에서 불이 난 경우를 보여 주는 본보기였다. 태극당 빵집과 같이 불어 있는 이 4層 建物은 1층은 家具店이고 2層은 茶房 그리고 3층은 칸막이 술집인 「로방 살롱」이었다.

4層은 베니아판자로 칸을 區分해서 男女從業員 宿所와 전콜 사무실로 쓰고있었다. 불은 3층 싸롱의 주방에서 부터 번지기 始作해서 카페트와 「커어튼」 나무칸막이등을 태우면서 삼시간에



누가 이것을 補償할 것인가!

는 잠겨있었다.

대부분의 중업원들은 屋上에 있던 밧줄을 열에 있는 4層 建物로 늘어 드린 다음 이를 타고 내려가 禍를 면했다. 그러나 당황해서 열건물로 뛰어내리다 길바닥으로 잘못 떨어져 죽기도했고 뒤늦게 대피하려던 중업원들은 煙氣에 질식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서로 겨안은채 숨져 있었다.

3. 로방 살롱 火災

日時: 1977년 3月 5日 새벽 2시 40분

場所: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5

原因: 전기누전

4層으로 번졌다. 불이 났을 때 4층에서는 15명이 잠자고 있었는데 불길의 번지며 3층과 4층 사이의 唯一한 出口인 階段을 막아 버렸다. 11명이 煙氣와 불길에 쌓여 燒死했고 마지막 勇氣를 내 4층에서 뛰어 내린 3사람은 건물옆에 늘어진 高壓電線에 감전되거나 길바닥에 떨어져 숨지고 말았다.

唯一한 生存者인 술집 管理人 崔日鍾씨는 4층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잠들었다가 불이야! 하는소리에 잠을 깬다. 불길이 이미 4층入口까지 번지고 있어 階段으로 빠져 나갈 수는 없었다. 맨발로 屋上으로 뛰어 올라 갔다.

이때 다른 從業員들이 길바닥으로 뛰어 내리는

것이 보였다. 崔氏는 非常口가 전혀 없는 屋上에서 밧줄과 같은 구조물건을 찾았으나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밧줄만이 흠뻑이 보였다. 崔氏는 마지막 手段으로 여기에 매달렸다.

뒤틀린 사람이 떨어질번 하면서 4층을 지났고 뜨거운 熱氣를 겨우 견디며 3층을 거쳐 2층까지 내려갔다. 다행히 2층에는 불길의 미치지 않고 있었다. 崔氏는 2층의 茶房 窓門을 깨고 다방안으로 들어갔다. 아래층의 셔터를 열고 火魔의 現場에서 빠져 나왔으나 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불길이 잠긴뒤의 건물안은 男女를 가릴수 없을 程度로 불에 탄 屍體들이 덩글고 있어 悽慘한 모습이었고 타다 남은 냉장고 에어컨등의 집기와 뼈대만 남은 의자, 탁자등이 消防車가 뿌린 불에 흠뻑 젖은 채였다.

불탄 로방살롱이나 朝苑 뿐만 아니라 술집등의 유흥업소들은 安全보다는 歡樂과 營利만을 꾀해 불에 잘 타는 물질로 요란하게 꾸미거나 칸막이 密室등을 꾸며 놓고 태평스레 돈을 벌고 있다.

로방살롱 火災 다음날 친구들과 들렀던 明洞의 地下 N살롱도 불이 날 경우를 생각한다면 감지도 않아 있을 수 없는 狀況이었다. 나무와 천으로 꾸민 칸막이, 廚房의 프로판가스, 바닥의 카펫, 그리고 술에 醉한채 담배를 피우는 손님과 從業員들! 그런데다가 出口라고는 오직 하나뿐인 入口는 좁은 階段이었다. 勿論 地下室에서 한개의 窓門도 없었다.

大然閣 火災 以後 불에 對한 一般人的 警覺心도 많이 높아졌고 消防當局과 한국火災保險協會의 安全點檢으로 火災 豫防에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또 잇따른 술집 火災로 많은 人命被害를 내자 서울시는 칸막이 술집에 대한 規制를 加하겠다고 나섰으나 火災 無防備지대는 市內 어느곳에나 흩어져 있는 實情이다.

또 遊興業所등 많은 人命被害를 낼 수 있는 單一 建物에 對한 安全點檢등의 防火對策도 改善되지 않고 있다.

4. 光明社 가방工場 火災

日時: 1977년 1월 22일 오전 9시 15분

場所: 서울 관악구 신림 5동 700-12

原因: 연탄난로 과열

被害: 死亡 5, 負傷 7, 財産 100만원

工場主人 朴基植氏(33)는 가방 원단을 裁斷하면서 朴在圭君(18)등 14명의 從業員을 데리고 가방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納品하기로 한 數量이 많아서 다른 날보다 일을 서둘렀다. 일을 시작하지 1時間쯤 지났을까? “평”하는 소리와 함께 난로 쪽에서 부터 불길이 치솟는 게 아닌가!

공장안에 피워는 연탄난로의 過熱된 열기가 접착제 본드에서 생긴 可燃性 가스에 닿아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이었다. 불을 끌 거를도 업두도 나지 않았다. 反射的으로 종업원들과 함께 2층 窓門을 깨고 길로 뛰어 내렸다.

불이 났을 때 工場옆에 붙어 있는 朴氏의 內室에서는 朴氏 夫人 黃鳳林(25)女人이 이웃집에서 놀러온 당곡국민학교 4학년 서주리 양(10)과 주리양의 두 조카 경선(8), 진선(6)양등과 함께 한살 난 딸 英美양의 재물을 돌봐주고 있었다.

黃女人은 “평” 소리와 함께 불길이 방쪽으로 덮쳐 오자 영겁결에 딸만을 안고 2層에서 뛰어 내렸다.

방안에서 놀던 주리양등 3어린이는 救助의 손길도 받지 못한채 그대로 불타 죽었고, 火傷을 입고 2층에서 뛰어내린 종업원 朴在圭君도 병원으로 옮겨져 死亡했다. 딸을 안고 뛰어내린 黃女人도 심한 상처와 충격을 이기지 못해 닷새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삼시간에 공장을 날려 버렸고 아내까지 잃은 朴氏는 다친 종업원들의 治療와 숨진 어린이들의 뒷일도 처리해야 했다. 2층에서 뛰어내리다 자신도 척추를 다쳐 병원에 入院한 朴氏는 重過失致死傷嫌疑로 刑事處罰도 받아야 했다.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이 故郷인 朴씨는 고향에서 中學校를 卒業한 뒤 農事일을 돕다가 19살 되던 1964년에 서울로 와서 雜貨商의 店員으로 就職을 했다. 朴씨는 부지런히 일했다.

자전거로 商品을 配達하는 일이 主된 일이었지만 主人이 바쁠 때면 가게를 맡기기도 했다. 몇년동안 열심히 일해 主人의 信任도 얻었고 돈도 조금은 모았다.

노점도 해봤고 자전거 배달로 돈을 벌기도 했다. 돈이 좀 모여지자 구멍가게를 차렸다. 生活이 安定되자 지난 75년에 黃女人을 만나 結婚했고 첫 딸 英美양도 낳았다. 몇백만원의 餘裕가 돌아 朴氏는 지난 76년 11월에 2層 工場자리를 100만원에 傳貰했고 300여 만원을 들여 加방工場을 차렸다. 加방공장은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지만 점차 틀이 잡혀 가고 있었다.

販賣處도 늘어 갔고 收入도 늘어 나던 중에 禍를 맞은 것이다. 工場을 차린지 석달만이였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保險金 467만원을 탔고 工場자리 傳貰金 100만원中 修理費를 빼고 4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다친 從事員들의 治療費만 300여 만원이 들었다. 숨진 어린이들에게 慰籍料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工場을 차릴때 親知들로부터 빌린 돈 200여 만원을 갚을 길이 막연하다.

딸 英美양을 시골 형님집으로 보내고 自身은 아직도 南部市立病院에 入院해 있는 朴氏는 治療費를 뭇 도리가 없어 일단은 고향으로 내려가 療養할 수 밖에 없는 形便이다.

올들어 서울市內에서는 4月 現在 20餘군데의 加방공장에서 불이나 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이처럼 加방공장의 화재가 잦아 서울시는 加방공장과 加공작업장에 대한 一齊 消防點檢을 實施했다. 그 結果 391個의 對象업소 가운데 90.5%인 354個所가 火災危險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344군데에 대해서는 是正 指示하고 10個所는 消防法등 違反嫌疑로 刑事告發했다.

그러나 住宅街의 家內工場등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등 위험물을 사용하고 저장하는 곳이

여전히 많아 當局의 보다 철저한 監督과 啓蒙이 要請되고 있다.

5. 市場火災(三九市場, 新平和 市場)

일시 : 1977년 3월 30日 0시 4분

場所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9

原因 : 전기누전

被害 : 2천 400만원

三九市場의 불은 그런대로 갖춰진 防火區劃 덕분에 被害를 줄일수 있었던 火災였다.

三九市場은 地下 2層에 地上 三層의 建物로 1층에는 금은방과 일용품가게등 48個의 店舖가 있고 2층은 200여개의 점포가 있는 三九百貨店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3층에는 카바레와 사무실이 있었다.

불은 1층 東쪽 中間지점에 있는 大榮타월상화에서 일어났다. 경찰의 鑑識結果 이 가게에서 몇대로 끌어 쓰던 電線의 接點부분이 벗겨진채였는데, 이부분이 수전에 닿아 發火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은 大榮타월을 태우면서 바로 옆가게로 번지기 시작했다.

70餘대의 消防車가 出動했지만 영등포 지하상가 工事로 건물 앞길이 파헤쳐져 接近하기가 어려웠다. 店舖의 大部分이 철제 샷다를 닫고 있어서 물줄기를 쏟아 넣기도 힘들었다.

불은 1층에 있는 48個 店舖가운데 절반가량을 태우고 鎮火됐다. 200여개의 店舖와 商品이 가득찬 2층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千萬多幸이었다.

1층에서 2층으로 通하는 12個의 屋內階段에 모두 防火區劃이 갖춰진 덕택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도 屋外 非常階段과 通路 表示燈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市場안에서 석유등을 사용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三九市場이 불탄 날 밤 9시 5분쯤에는 서울중

구 신당 1동 217번지 新平和市場 三層에서 불이나 B棟과 C棟의 가게 100여개를 태웠다.

層別 防火區劃은 제구실을 했지만 같은 層에서의 防火壁이 형식적인 것이었고 열린채 放置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被害가 컸다.

市場은 대부분 좁은 空間에 많은 商店들이 密集돼 있고 옷가지등 引火物質을 大量으로 取扱하는 火災 脆弱性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市場가운데 남은 木造建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撤去해야 할 火急한 문제이다. 또 소방도로나 피난설비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入住商人들이 멋대로 電氣시설을 利用한다거나 石油난로등을 使用하는 無謀함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市場火災하면 大旺코너가 머리에 떠오른다. 두차례의 큰불을 겪고도 內部構造를 改善하지 않고 베니아 칸막이를 한채 섬유제품과 양품류등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하다가 세번째 火魔가 덮쳤던 1975년 10월 12일 밤!

불탄 大旺코너의 2층과 3층은 1600여명이 그대로 기동만 남은채여서 아직도 불귀신이 살고 있는 洞窟처럼 험하니 무서운 모습으로 남아있다.

불이 난후 大旺코너는 債權銀行이 競賣에붙여 主人이 바뀌었고 建物骨造는 그대로 使用할 수 있다는 安全診斷 結果가 나와 內部工事 契約를 맺었지만 入住商人 517명이 낸 12億원의 入住保證金 문제가 解決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工事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4月 現在)

× × ×

불은 禍와 福, 失과 利, 惡과 善이라는 두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神話를 보면 火神은 「헤파이 스토스」와 「하이데스」두명이다. 男性神인 「헤파이 스토스」는 추남에다가 절름발이인 대장쟁이로 神格化돼 있다. 反面 「하이데스」神은 神族가운데서 「제우스」神에 버금가는 位置에 있는 神으로 人間을 돌봐주는 자상한 女神이다.

이를테면 男性火神은 暴力의 化身이요, 災難의 神인 反面에, 女性神인 「하이데스」는 人間을 돕고 보살피는 慈惠의 상징이다. 또 人間에게 불을 주고 天罰을 받았다는 「프로메테우스」는 지금도 「코카사스」山頂에서 쇠사슬로 결박당한채 낮이면 독수리에게 生肝을 찢기는 苦痛을 받고 있다 한다. 人類의 恩人인 「프로메테우스」는 지금도 자기가 준 불이 災難을 주지 않는 利器로 人間을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恒常 불의 도움을 받으며 불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불은 산소와 燃料 그리고 熱이나는 여건만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또 언제나 火魔로 突變할 무서움을 안고 있다. 불조심, 방화진단, 소방훈련도 모두 重要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설마? 우리집은? 이 建물은, “괜찮겠지”하고 放心하는 安易한 精神 姿勢이다.

